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 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쳐 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견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